

啓星女子中高等學校 圖書館

學生들의 書齋

명동 성당 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啓星女子中高等學校 正門을 들어서면 北東쪽으로 2層 고딕건물의 圖書館이 바라 보인다.

도서관 건물은 성당건물의 一部였던 獨立建物を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宗教的인 雰圍氣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1957年 木造建物 2層에 20坪의 閱覽室로 發足한 이 圖書館은 64年 옛 교구실인 現在의 場所로 移轉, 圖書館 總面積은 84.5坪의 獨立 建物이다.

圖書館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소지품 保管室, 오른쪽으로 事務室이 있고 閱覽室로 들어서면 막바로 「새로 들어온 책」이 꽂혀있으며 왼쪽으로 參考圖書館, 오른쪽 카운터에 職員이 앉아 있다. 그리고 閱覽室 가장자리엔 書架를 分野別로 진열해 놓아 원하는 책을 배열된 서가에서 뽑아다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2層은 주로 敎職員들의 研究室로 쓰인다.

座席數는 172席으로 이를 3천여명의 中·高生들이 사용하는 셈이다. 學生數에 比해선 모자라는 숫자이지만 文教部의 設置令의 基準인 1學級當 3座席 數로 본다면 미달되지는 않는다.

도서관의 主役은 資料이다. 도서관의 藏書는 10,026卷(74年)이며 宗教書籍이 다른 學校보다 약간 많았다. 이는 학교가 카톨릭 財團이기 때문이다.

完全開架式

이들 藏書의 備置는 完全開架式 書架에 參考圖書類(辭典, 年鑑 1,053卷), 兒童圖書類(1,000卷), 學習參考圖書類(2,000卷) 그리고 나머지는 古典文庫 및



(完全開架 書架에서 책을 찾아보는 學生들)

一般圖書別로 되어있고 一般圖書는 또다시 細分해서 哲學, 宗教, 社會科學, 文學, 歷史, 地理別로 書架를 달리해서 備置해 놓았다.

圖書館의 責任 司書敎師 高 琪植선생은 「國民學校 시절에 읽어야할 책들을 못읽는 學生들이 많아서 아동 도서를 따로 배열해 놓았더니 中學生들에게 꽤 많이 읽힌다」고 말하며 여기서부터 책에 취미를 붙인 學生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高교사는 開架式 書架의 단점이라면 책의 분실과 파손이라고 들며, 그러나 「1년에 10餘卷정도의 분실이 있다손 치드라도 1백여권의 책을 읽힐 수 있다면 損害보다는 利得이라고」主張한다.

대부분의 中·高校 도서관은 司書 또는 擔當者에게 願하는 책을 申請해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값진 책은 아예 교장실의 유리책장속에 모셔두는 것도 적지 않다.

밤 9시까지 開館, 館外 貸出도

開館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연다. 利用者가 많이 몰리는 時間은 역시 방과후이다. 1日平均 入館者數는 高等學生이 65名, 中學生이 1백여명에 이른다.

運營은 高 琪植, 洪 淑 姬씨외에 補助員 1名과 圖書委員 35名이 맡아 한다.

館外 圖書貸出은 1週日에 2회로 1人 1冊에 限하고 있다. 보통 1회에 4백여권씩 貸出된다.

讀書指導를 活發히

圖書館 利用지도와 독서지도를 잘하고 있다. 매년 新入生 오리엔테이션때에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또 在學生인 경우 自習時間을 利用해서 讀書指導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독서주간」에는 圖書館利用 統計를 보고 最高利用者賞, 多讀賞 등을 주고, 독후감 모집, 독서포스터 등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성당에 다니는 信者들도 利用할 수 있는 地域 社會 圖書館 구실도 하고 있다.

完全開架制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술면에서 大學 圖書館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有能한 專門職 司書의 努力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